

# 원리금보장 많은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저조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 382조 DC형 18.1%. IRP 31.2% 증가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 적어 10년 장기 수익률 연 2.07% 불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어난 3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투자 운용이 가능한 DC형(18.1%)과 개인형 IRP(31.2%)의 적립액 성장률이 DB형(6.7%)보다 적립액 성장률이 가팔랐다.

같은 기간 연간 수익률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연 5.26%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에 머물렀다.

### ◆ 원리금보장 비중 74.8%

국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적립금 규모 대비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예금, 국채 등 초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5년, 10년 장기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저위험 상품에 투자한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지만, 평균 수익률이 연 2%에 그쳐 증시·펀드 등에 투자하는 원리금비보장 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 규모 대비 원리금보장 상품 선택률(DC형 78.7%, IRP 70.2%)은 74.8%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시 운용 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의 90%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됐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낮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저조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노후 소득원'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원석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서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을 2.7%로 제시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로 2.1%를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는 낮은 이직과 낮은 수익률에 따른 높은 중도 해지율과 이에 따른 최종 적립액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의 89.6%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대신 일시 출금했다. 평균 수령

액도 1645만원에 그쳤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가입자의 49.9%는 퇴직연금 일시 출금 요인으로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를 꼽았다.

###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대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DC형이 연 12%, IRP가 연 12.6%에 달했다. 그러나 5년 수익률은 DC형이 연 4%, IRP가 연 4.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DC형 연 2.26%, IPR 연 1.96%)과의 차이는 2%p 안팎에 불과했고, 5년 수익률에서 연 10.1%(2016~2020년)를 기록한 미국, 연 7.42%(2019~2023년)를 기록한 호주 등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화가 지속되면 퇴직 소득 안정화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악화될 수 있다"며 "적어도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롯데카드 물놀이장·항공권 등 휴가철 맞아 할인혜택

롯데카드가 물놀이장 및 해외 항공권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 항공권 최대 20% 절약

롯데카드는 여름을 맞아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롯데워터파크 김해에서 본인 입장권 50%, 동반 3인까지 40% 할인한다. 전월실적 20만 원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해외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20%를 아낄 수 있다. 이어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웹투어 ▲투어비스 등에서는 할인율을 15%로 책정했다. 모두 투어에서 여행 행사 상품을 150만원 이상 결제하면 5만 원을 할인한다. 마이리얼트립에서 1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2000원, 트리플에서는 최대 2만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 KB국민카드

#### 자동납부 신규고객 캐시백·경품 증정

KB국민카드가 자동 납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및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 ◆ 관리비 월 최대 30만원 캐시백

KB국민카드는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리비 자동 납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자동 납부 등록하면 시 각각 5000원을 돌려준다. 단 지난 1월 이후 관리비, 전기요금 항목의 자동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내달 31일까지 자동 납부 신규 등록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를 캐시백한다.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 중 한 개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3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이다.

### NH농협카드

####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NH농협카드가 제철 음식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 ◆ 신선식품 및 편의점서 할인

NH농협카드는 7월을 맞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메프에서 진행하는 '농협 브랜드 신선식품 프로모션'을 통해 농협상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어 티몬에서는 '농협 신선식품 산지직송' 행사를 진행한다.

편의점에서도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25 샌드위치(30%) ▲CU 국가대표 간편식 시리즈(30%) ▲이마트24 편승량 상품(30%) ▲세븐일레븐 맥주 행사상품(20%) 순이다.

'더위극복 응모 이벤트'도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LG 휘센 오보제컬렉션 제습기 ▲설화수 상백선 크림세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 후 반포권역 위상 정점 이룰 것”

NH투자증권, 반포아파트 심층분석 실수요 위주 가장 특색한 한채 주목 원펜타스·메이플·트리니티 등 대기

국내 아파트 최고가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 반포의 위상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에 '뚝뚝한 한채'에서 '가장 특색한 한채'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한강변에 대한 선호도 더 커지면서다.

NH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반포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메이플자이'와 '래미안 트리니티' 등 신축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로 반포권역의 위상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을 아우르는 반포권역은 한강을 접하고 있으며, 한

강 이남권에서도 서울 중앙에 위치했다. 경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서울고속터미널이 있으며, 지하철 3·7·9호선이 용이 가능해 광역교통과 시내교통 모두 좋다. 초중고를 비롯해 주변 학원까지 발달된 대표 강남 8학군 지역이다. 의료와 체육 등 생활편의시설뿐 아니라 백화점 매출 규모 1위의 신세계 강남점 있어 주거 환경이 좋다.

강남 개발 이후 반포가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00년대 후반 반포주공2단지 3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각각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면서다. 한강변에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들어서며 국내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로 반포의 위상이 공고해졌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

구원은 "실수요 시장이 계속될수록 '가장 특색한 한채'로 주거상향 이동 움직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최상급지로서 시장을 극대화하며 반포권역의 진입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반포동 한강변 신축 단지의 가격 흐름이 시차를 두고 잠원동 일대와 구축, 학원가 인근, 서초, 방배 일대로 남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 이후 반포권역의 입지적 위상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기준 실거래 가격은 반포동이 3.3㎡당 8556만원, 잠원동은 7554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현재까지 최고가는 아크로리버파크로 2022년 1월에 4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거래

가는 작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4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잠원동에서는 한강변 입지의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 4월 40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서는 신반포4차가 3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가격 변수는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체나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추이 등이다. 압구정 및 청담, 삼성, 대치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반포 진입이 가능한 유효 수요가 강남으로 분산될 수 있다.

정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단지만 모여 있는 압구정동 시세가 반포 신축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추후 진행 속도에 따라 시세 형성의 동인이 압구정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銀,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협약

클린페이 영역 민간기업으로 확장 하도급 구조 공정문화 조성 앞장

신한은행이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클린페이' 도입 관련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

인 사업 수행을 돕는다.

정상혁 은행장은 "대우건설과의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클린페이'의 영역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 솔루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이 대우건설 백정환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